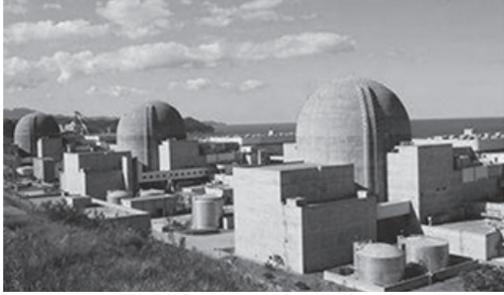


동해에서 지진 잇따라 원전 안전성 확보 '시급'

동해 앞바다에서 사흘 사이 규모 4.0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혹시라도 모를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 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와 원전 내진설계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발전소

운영 원전 23기 중 17기가 밀집해 있다.

지난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 들어 동해에서 일어난 지진 중 3번째로 강력한 규모다. 사흘 전인 지난 19일에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관측됐고, 2월 10일에는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4.0을 오가는 강한 지진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동해에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동해안에는 울진 한울원전 6기(건설 중 원전 2기)를 비롯해 경주 월성 원전 5기, 부산 고리원전 5기, 울산 새울 원전 1기(건설 중 3기) 등 우리나라 전체

환경운동연합탈핵위원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원전의 내진설계 보강과 지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동해는 원전 밀집지역으로 계속되는 지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활성단층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원전을 포함한 각종 건물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지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 보강이 불가능한 경주 월성 2~4호기 등은 안전을 위해 폐쇄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진 전문가는 "동해는 수심이 남해나 서해보다 깊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해일이 일어날 경우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육지와 함께 동해안 해저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 DMZ 평화둘레길 개방 유엔사 승인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 둘레길 관광을 승인했다.

지난 2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유엔사는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고성 지역의 DMZ 내 평화안보 체험길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MZ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와 한국정부는 그동안 평화 둘레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팀워크와 협업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평화 둘레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광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긴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강원도 고성·철원, 경기도 파주 등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로 선정한다.

이중 고성 지역 평화둘레길만 27일 우선 개방했다. 고성 둘레길 대부분의 구간은 남방한계선 철책 이남 지역에

조성됐기 때문에 유엔사의 출입 승인이 필요 없지만, 일부 구간은 과거에 설정된 남방한계선보다 위쪽에 있어 유엔사의 출입 승인이 필요했다.

이 코스는 도보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을 따라 이동 후 차량으로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구간이다.

총 7.9km, 도보로 2.7km다. 통일전망대와 금강산전망대를 오가는 차량 이동 코스는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GOP 철책을 넘어 DMZ 안까지 들어가는 철원과 파주 지역도 4월 말부터 시범 개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광객 안전 보장 문제가 있어 추후 개방 시기를 판단하기로 했다.

파주 지역 평화둘레길은 차량으로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를 경유, 철거된 감시초소(GP)까지를 왕복하는 구간이다. 총 21km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철원 지역은 도보로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GOP 철책 남측을 따라 약 5.9km 이동 후 차량으로 화살머리 고지 내 비상주 GP를 방문해 백마고지 전적비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총 15km다.

유엔사는 정부가 향후 추진할 계획인 철원과 파주 등 둘레길 2곳은 아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